夕刊 朝鮮日報

社說

地方稅制改正에 對하야

—負擔의 重複을 避하라—

今番 當局의 地方課에서는 今次 國稅改正을 機會로 地方稅制의 大改正을 加하야 租稅體系의 完備를 期한다 한다. 國稅制度가 改正되엇스매 이에 딸아 地方稅制도 改正되어야할것은 當然한 歸結이어니와, 今次 改正된 國稅制度가 當局의 表明하는것과가티 負擔의 均衡보담은 負擔의 加重을 結果하얏다는것은 本欄에 이미 許論한바와 가트니, 地方稅制의 改正에 잇서서는 더한層 人民의 負擔加重을 避하도록 努力치 안흐면 안될것이다.

二

왜 今番 改正된 國稅制度가 人民의 負擔加重이 되엇는가 하는 理由로는 이러한것을 들엇섯다. 即 (一) 個人所得稅의 免稅點에 잇서서 年收入八百圓으로한것은 都市의 小俸給生活者와 農村의 中農이 負擔을 加重케한것이오 (二) 所得稅를 減稅햇다고 地稅率을 減下햇으나 겨우 千分의 十五로밧게 내리우지 못하야 重複課稅의 批難을 免치못하게 되엇고 (三) 淸涼飲料稅의 新設은 一般消費層의 間接負擔을 增加한것이다.

勿論 所得稅의 新設에 딸아 그 收入의 一部分을 敎育에 補助하야 學校費를 構成하는 戶別割, 稅의 輕減을 꾀한다하얏스니 이것은 어느程度까지 細民階級의 負擔을 經減햇다할수잇스나 中産階級에는 負擔의 加重이다.

三

地方稅制에 잇어서 人民의 負擔을 加重치안케하랴면 地方稅 一億二千餘萬圓中 人民의 直接 間接으로되는 四千百餘萬圓의 租稅의 經減에 잇다. 地方租稅는 道稅, 府稅, 邑面稅, 學校費, 學校組合費로 나누어잇는데 道稅의 重要한 部分을 構成하는것은 地稅附加稅, 所得稅, 附加稅及 特別稅인 特別所得稅, 林野稅, 戶稅家屋稅, 屠場稅, 屠畜稅, 漁業稅車輛稅及 不動産取得稅요, 府稅는 國稅인 地稅, 所得稅, 營業稅, 取引所稅, 地方稅인 家屋稅, 車輛稅, 特別所得稅의 附加稅及 特別稅로서의 特別戶別稅로 되엇스며, 邑面稅는 國稅인 地稅, 所得稅, 營業稅, 地方稅인 車輛稅, 特別所得稅의 附加稅及 特別稅로서의 邑面戶別割로 되엇고 學校費는 戶稅附加金, 家屋附加金, 戶別割로 되엇고 學校組合費는 學校組合賦課金로 되엇는데, 要컨대 附加稅, 戶別割及 其他가 重要한것이다.

四

그러므로 이 附加稅, 戶別割, 稅及其他를 적어도 輕減할지언정 增加치 말지며, 輕減하드래도 그 比率을 國稅와가티 少率로 말고 大率로 할것이다. 드러대 現在 施行하고잇는 所得稅인 家屋稅는 擴張하야 邑面에도 施行하다하니 이것어 비록 家屋을 가진 所有者에 課한다할지라도 負擔의 增加임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되도록은 家屋稅를 邑面에 施行하지 안는 것이 잇스니 當施한다하드래도 한다면 高大한 家屋에 限하고, 所得稅의 附加稅도 新設할지 모르나 이것도 負擔의 增이다. 所得者에게 限할것이다. 그리고 地稅, 營業稅, 家屋稅의 附加稅, 賦課金은 極히 低率로 할지며 戶別稅에 잇서서는 小以上을 減할것은 全部 細中이라하나 所得稅가 잇는 以上 重複을 避키爲하야 戶別割稅를 全廢해야할것이다. 이밧게 車輛稅, 其他 小商에게 負擔을 加重케하는 地方稅는 一切로 廢止할지니 이리하고야 稅收의 收入上으로 租稅의 增加가 되드래도 負擔均衡이 될것이다. 地方稅制改正에 際하야 特히 當局의 考慮를 促한다.

존슨法適用, 蘇聯을 戰債不拂國으로 認定

英, 伊, 라, 리 諸國은 一部支拂

米國融資를 停止?

【聯合華盛頓五日發】 去四月十三日루-즈벨트大統領의 裁可에 依하야 正式成立을 본 하이람 존슨氏提案인 戰債不拂國에 對한 融資停止案은 곳 實施하게 되어 이때문에 司法省에서 戰債不拂國의 定義를 明確케하기로 되엇는데 審査를 行한 結果 五日에 至하야 決定을 보앗슴으로 司法長官 카밍그쓰氏의 意見을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一, 英國, 伊太利, 라트비아, 리트아니아는 全額은 支拂치 안엇스나 內拂을 履行한 故로 존슨法案의 適用을 밧지 안는다 딸아서 現在의 形勢으로는 不拂國이라고 判定키 어렵다

一, 蘇聯邦은 承認되얏스나 케렌스키 政府借款에 對한 支拂을 履行치 안엇슴으로 不拂國으로 認定한다

蘇聯人不法越境 滿洲國郵便强奪

外交部에서 嚴重抗議

【電通新京五日發】 昨年末頃부터 蘇滿國境各方面에 蘇聯邦人의 越境暴行事件이 多少적엇섯는데 去二月二十一日 黑龍江省北端 漠河縣에서 蘇聯邦人이 河川을 越하야 不法越境入國하야 同縣의 郵便配達夫의 所持한 가방을 强奪하고 在中한 普通郵便五通 官廳公文書二通紛失한 事件이 發覺하얏슴으로 蘇聯邦에 對하야 嚴重抗議하얏스나 蘇聯側은 言을 左右하고 何等 要領을 得하지 못하므로 滿洲國外交部는 問題를 重視하고 如左한 嚴重한 抗議를 四日附로 發하얏다

一, 强盜犯人逮捕並處分

二, 紛失郵便物의 搜査並引渡要求

三, 此種事件再發防止에 對한 適當한 手段方法을 要求함

그리고 郵便行囊强奪事件은 大同二年十月末에 發生하얏는데 이 抗議에 對한 蘇聯側의 態度如何에 依하야는 斷乎한 態度를 取할터이다

蘇波不可侵條約

一九四五年까지 延期

◇議定書調印完了

【聯合莫斯科五日發】 蘇聯邦外務人民委員長 리트비노프氏와 駐蘇波蘭大使르카스브잇치兩氏는 五日外務人民委員部에서 蘇聯邦波蘭間의 不可侵條約을 一九四五年末까지 延期할旨의 議定書에 調印하엿다 同協定은 『蘇聯邦中央執行委員會와 波蘭共和國大統領은 兩國의 相互間의 發展을 爲하야 可及的 가장 强固한 基礎를 保障하기를 希望하고 또 兩國間에 成立한 平和에 對하야 友好的 關係의 不斷과 持續의 證左를 相互提示함을 要望하고 또 一般的 平和와 東歐諸國間關係의 平和的 發展과 安定에 寄與

世界最小의 飛行機

(이리노이洲시세로의 機械製作所)

이리노이洲시세로에서 製作된 世界最小의, 그러나 性能은 第一級이라는 小飛行機이다 翼長十五呎, 自重四百封度, 時速百二十哩이나 一時間겨우 三갈논의 개솔린밧게 消費하지 안는다 當局은 通常飛行機와 小飛行機

世界週史

메이데이의 經過

朝鮮內에서는 警戒가 嚴重한 關係上 메이데이에 對한 策動을 可能視하지 못햇섯스나 메라의 貼付 또는 密送等 意外行動이 잇서서 當局에서도 자못 놀래는 同時 今後一層嚴重한 方針을 取하게 될터이라 한다.

對中聲明은解決

日本의 對中聲明에 對하야 英下院에서 사이먼外相은 諒解의 뜻을 陳述하얏더니 그 言句에 對한 詰問이 中國側으로부터 잇섯스며 廣田外相이 그 聲明의 本旨에 對하야 說明을 보내엇더니 米國의 長官헐氏는 다시 米國의 强硬한 態度를 正式으로 聲明하는 等 問題가 層生疊出하야 再惡化도 憂慮하얏스나 結局無事히 끗을마치어 一日外務省에서는 英米公使와의 會見內容一切를 發表하얏다.

樞府議長의 更迭

三日 樞密院議長 倉富氏가 突然辭表를 提出하야 그 後任으로 前宮相一木氏가 推擧되얏는데 倉富氏의 辭任理由는 表面上 身病에 잇다고하나 그 實상은 近日 樞密院內에 平沼派의 勢力이 膨脹하야 議長으로서도 牽制키 不能함에 잇는듯하며 在來慣例上 그 後任은 當然 平沼副議長이 昇格되어야할것이나 平沼氏에 對하야는 元老重臣들의 先入見이 조치못한 까닭에 實現되지 못한 모양이다.

日英通商의危機

英國의 强硬한 態度는 알미아마 日英會商은 究竟決裂의 結果를 매젓거니와 三日英商相런시만氏로부터 日本政府에 對하야 覺書가 送付되야왓슴으로 方今外務省은 그 覺書를 노코 重大協議를 行하는中이다. 그 覺書의 內容은 아즉 公表치안하나 日本政府에서 對英綿布輸出을 自發的으로 制限치안는限 英國은 各殖民地와 協力하야 日本綿布에 對한 輸入制限令을 適用한다고 하는 非友誼的의것이아닐까 推測된다고한다.

外蒙古軍備擴充

百靈廟蒙古自治委員會의 첫會議에 臨席한後 四日天津으로 돌아온 白雲梯氏의 말에 依하면 最近外蒙古는 相當한 赤化되고잇서 軍備가 擴充되고잇서 飛行機가 三百隊나 되는바 戰鬪機만도 五十機에 이르고 軍隊는 蒙兵과 露國人으로 編制하고잇스며 軍用自動車道路는 이미 그물로와가치 發達되어잇다고 한다.

福建合省이 危險

三日外務省着電에 依하면 福建省內共産軍主力의 活動은 漸漸더 猛烈化해저서 中央軍의 討伐은 全然困難中에 빠젓스니 方今中央軍은 지금 壽甯 沙縣 將樂縣을 根據로 겨오 抵抗을 繼續하는 同時 다시 東路前敵總指揮蔣光鼐를 시기어 그 討伐에 赴하기를 命令하얏다고하되 今番의 共産軍을 退却시키기는 자못 힘들리라고 한다.

比島獨立案受諾

比島獨立에 關한 맥다피 타이딩스法案을 討議키爲하야 比島議會는 三十日로부터 特別會議를 開催하고 一日까지 討議를 거듭한結果 드되어 그受諾을 可決하얏고 뒤이어 그 法案中에 規定되어잇는 憲法會議에 關한 것을 準備하얏다고한다. 맥다피 타이딩스法案을 선사로가지고 米國으로부터 三十日마닐라에 到着한 케손氏는 凱旋將軍과 가치 歡迎되얏는대 氏도 米國과 有利한 通商條約을 締結치못하는限 比島의 産業이 萎縮되어 再次 手工業時代로 돌아갈것을 云謂하얏다.

佛코부랑의內亂

一日佛國下院의 共産黨議員 몬조반氏를 換問한데 對하야 코부랑地方의 共産黨員들은 크게 憤慨해가지고 暴動을 이르키엇다. 警官隊와 軍隊가 그 鎭壓에 向한대 對하야 共産黨員들은 小銃으로써 抵抗하야 警官隊 軍隊도 一時退却함을 마지못하기에 이르럿다.

예멘國革命勃發

英保護下에 잇는 예멘王國은 그의 隣國 해자스, 네지드聯合王國으로부터 戰爭을 하고잇섯스나 近日예멘軍이 不利하야 해자스軍이 紅海沿岸에까지 進出하얏다. 敗北한 예멘에는 드되어 革命을 이르키어 首都 사아나는 全然 混亂狀態에 빠젓슴으로 英伊兩國은 居留民保護를 目的삼아서 軍艦을 派遣하얏다.

墺國新憲法通過

墺地利議會는 三十日上下院合同의 聯邦會議를 開하고 돌프스首相이 이르는바 社會的 基督敎的 거르만的 墺地利聯邦의 組織을 目標로하는 新憲法의 採用을 可決하얏슴으로 一九二〇年 十月에 制定된 墺地共和國의 憲法은 新憲法實施와 한께 解消되야버릴것이다.

롬軍需工場 突然閉鎖

【電通滿洲里五日發】 蘇聯邦第二次五軍計劃으로 極東의 重工業振興의 目的으로 一九三二年 設立된 롬쓰크金屬工場에서는 從業員五千名을 갓고잇고 英獨兩國에서 養成한 技師指導下에 軍需品의 製造를 하고잇던바 四日突然閉鎖하엿다

墨國聯盟復歸

【聯合쥬네브五日發】 墨西哥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쥬네브駐

伊, 巨額建艦費

追加支出案을承認

【電通羅馬五日發】 伊太利政府는 五日夜 官報로서 新建造費로서 總額四億八千萬리라의 追加支出案承認을 發表하얏다 右는 一九三五年부터 始作하야 一九四〇年까지 終하는 五個年間에 分割되어잇는데 軍縮會議의 難局에서 世界의 軍備擴張의 機運이 漸次盛하야진 此際 이 巨額의 建艦費支出은 注目된다

外務省에 公電到着

日本이 固執하는限 經濟抗爭도 未免

內容極히 强硬한 英政府覺書

【聯合東京電話】 去三日駐英松平大使는 런시맨商相과 日英會商問題에 關하야 會見하엿는대 그때에 런시맨商相이 提出한 覺書는 五日松平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入電이 잇섯다 右內容은 런시맨商相이 議會에서 發表하기로되여잇거니와 要旨는 大體 左와 如하다

即英國政府는 現狀대로는 日英會商繼續은 何等効果를 齎來할수업슬것이다 그러므로 如斯한 狀態로 질게끄으는것은 英國通商을 擁護하는 所以가 안이라고잇다 딸아서 今回의 處置를 取하지안을수 업는바이다

一, 輸入配定制는 直轄植民地에 잇서서도 採擇하려는 一般的 性質의것이다 그리고 西아프리카는 現在 他國에 對하야 條約上의 義務가 잇슴으로 事情을 달리한다

一, 英國本國은 以上의 事項은 一九三二年來로 考慮하는것이어니와 今後英國은 行動의 自由를 留保한다 또 日本政府에서 相互協定에 依하야 問題가 解決될 徵兆가 잇다면 英國政府로서는 考慮할 準備를 갓고잇다

右에 依하야 英國은 政府會商의 條件에 綿絲, 人絹에 限하야 協定締結을 英本國과 直轄植民地에 限定식히려는 意向이 明白하게되엿다 그리고 今回에 取하려하는 措置라함은 勿論 配定制는 綿布人絹뿐이오 綿은 關稅引上한다는것인대 이것으로 日本이 萬若 日英會商에 妥協的 態度를 表示치안는限 日英의 經濟抗爭도 辭讓치안는다는 意思를 表明한것으로 觀測히 非友誼的의 內容의것이다 日本外務省은 右公電에 接하엿슴으로 愼重히 協議中인대 올데업시 英國과 無用의 抗爭을 可及的 迅速히 避할것이라하야 施延期를 希望하든가 또는 새로 日本으로부터 具體案을 英國에 提出하든가 兩者中 그 하나를 取할것으로 보는대 近日中에 民間當業者의 意向을 聽取하고 松平大使에게 訓電을 發하기로 되엿다

來週初英國政府에 一旦照會를 發送

外務省首腦部協議

【電通東京電話】 外務省은 英國政府의 日英通商會商에 對한 三日附의 覺書를 入手하엿스므로 五日午前 有田次官 首腦部와 協議한 結果 對策에 對하야

一, 英國政府는 日英會商의 停頓을 理由로 하야 英本國及 植民地에서 日本綿布並 人絹에 對하야 輸入配定及 關稅引上을 不得已實施하게 된 것은 外務當局도 英國政府의 것

一, 日本政府에서 速히 日英會商에 對한 具體的 成案을 하야 右實施를 考慮할것

의 二點을 中心으로 하야 日英會商開催의 困難한것을 認定하고 具體的 成案의 責任을 日本政府에 轉嫁하며 그뿐 아니라 非友誼的 務威로써 한 巧妙한 手段에 稍히 不滿의 意를 보이고 잇다 그리고 右覺書의 細目的 部分에는 또 不明한 點이 잇스므로 來週初 英國政府에 對하야 一旦 照會를 發하기로 하고 日本側에서 日英會商의 具體的 提案을 할 與否에 對하여는 더욱 愼重히 熟慮하기로 되엇나

獨逸의 空軍擴張

背後에 英米工業家

戰鬪機二千五百臺를 獨逸이 注文

네순誌가 眞相暴露

【聯合紐育四日發】 西歐諸國間軍縮條約에 依하야 一層斷然히 된 獨逸의 强硬한 態度에 伴하야 近近空軍의 整備에 專念할目的으로 獨逸政府는 쩰링航空相의 後援下에 等 獨逸空軍의 將來는 一般에 非常한 注目의 的이 되어잇는 此際에 最近 네이손誌는 獨逸空軍復興의 背後에 英國米國製造業者의 손이 움직이고잇는 事實을 暴露하야 적지안은 센세이손을 捲起하고잇다 歐羅巴最良의 空軍을 建設하려는 獨逸의 計劃에 依하야 米國의 某某飛行機會社의 손이 動하고잇슴은 明白한것으로 目下 伯林에서 此等會社의 代表三名이 滯在하야 獨逸當局과 折衝을 거듭하고잇다 伯林外交部는 히틀러政府가 最近爆擊機及戰鬪機 二千五百臺를 建設할目的으로 그部分品을 英國, 米國의會社에 注文하고 그 一部分의 發品은 이미 受取하얏스므로 되여잇다는것은 最近周知의 事實로되여잇다 그리고 그 事實에 對하야 獨逸政府는 頻頻히 否認의 聲明을 發하고잇다

九國條約修正하면

軍縮條約은 崩壞

세로우氏의 所說

【聯合巴里五日發】 페르티나크쓰의 『펜네임』으로 알려진 에코·더·파리紙外報部長시에로-氏는 五日同紙上에 中國에 關한 九個國條約修正論을 揭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極東의 現狀에 鑑하야 日本政府其他九個國條約締結國은 새로 協定을 맺저 現實에 適應하도록 九個國條約을 修正하는것이 조켓다 萬若 九個國條約修正에 關하야 締結國間의 意見의 一致를 보면 一九三五年의 海軍縮少會議에서 華盛頓, 倫敦兩條約은 崩壞될것이다

白國皇帝의 崩御는 他殺?

元英國陸軍情報部員의 新說

【電通노펑갈(英吉利)五日發】 元英國陸軍의 情報部員이엿든 著述家 그레-암·씨퍼-ㄴ小佐는 五日 노펑갈의 作家俱樂部에서 逝去한 白耳義皇帝 一世陛下가 奇巖御登攀中 墜落崩御하섯다는 原因에 對하야 『右는 決코 御不慮에 依한 御奇禍가 안이고 其實은 他殺이다』라는 可驚할 奇怪한 新說을 發表하야 센세이숀을 捲起하엿다 中佐의 述한바에 依하면 白耳義先帝는 이미 獨逸에 對하야 戰爭을 하려든 一派의 無謀에 가까운 計劃에 贊意를 表하시지 안으신 까닭에 마츰 레-다 岩을 單身御登涉의 機會에 그 一派에게 凄慘하시게 御一步을 마치시게 되엿다 그 證據에는 先帝의 御死體의 御頭部에는 打撲傷으로 認할만한것이 업는대 이것으로도 明白히 御墜落에 依한 崩御가 안이것을 推察할수잇다고

혼國首府周圍에 國防地帶를 設置

【聯合巴里五日發】 中米 혼쥬러쓰(혼쥬러쓰)政府는 同國의 國防强化手段으로서 首府 테구시갈바 周圍에 八個所의 國防地帶를 新設할旨를 發表하야 左와 如히 布告하엿다

一, 右國防地帶에 立入을 禁止함

一, 同地帶에 關한 私有地는 一切 此를 强制收容함

日曜氣配

米日貨暴落

【聯合紐育五日發】 今日米國에 對한 日貨는 六仙低落하야 三十弗三十七仙으로 되엿다

◇株式 小强 氣迷保合을 繼續하는데 買方의 嫌氣賣物을 傳하야 日先的賣物이 出現

大新 三三〇〇 新東 一六〇二 鐘新 一六八一 日産 三四三

◇期米 小軟 五月一日 在米減少를 期待하려 傍側測도 大勢는 押目買로 下落

◇綿糸 不關

人事·集會

▲吳一承氏(醫學博士) 七日부터 市內樂園洞九五에 仁濟病院에서 開業

八面鋒

◇ 랄라라 랄라라 랑랑랑 랑랑랑 五月의 行進이다 새힘의 進軍이다.

◇ 동무들아 발마추어 나아가자 팔을 것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 어린이는 새살님의 主人이오 어린이는 새일터의 役軍일세.

◇ 갓구고 사랑하고 공경하라 새세상 꾸미도록 힘을주라

◇ 성한몸 바른마음 부지런성 세가지 미천삼아 새일하자

◇ 랄라라 랄라라 랑랑랑 랑랑랑 五月의 行進이다 새힘의 進軍이다.

今日本紙四面

온갓것의 奉仕에 率先함

帝國生命

(一) 團體月賦取扱
各社보다 率先하야 商工省의 認可를 어더 官公署, 會社, 工場其他의 集團에 對하야 昨夏以來 有利한 月賦取扱을 開始하야써 各方面의 利用을 엇고잇습니다

(二) 保險料의 前納
『貯蓄·信託·投資를 兼한 保險』으로서의 眞價를 直接發揮할 保險料前納制度의 活用이며 四分複利割引과 利差配當에 依하야 運用의 妙를 得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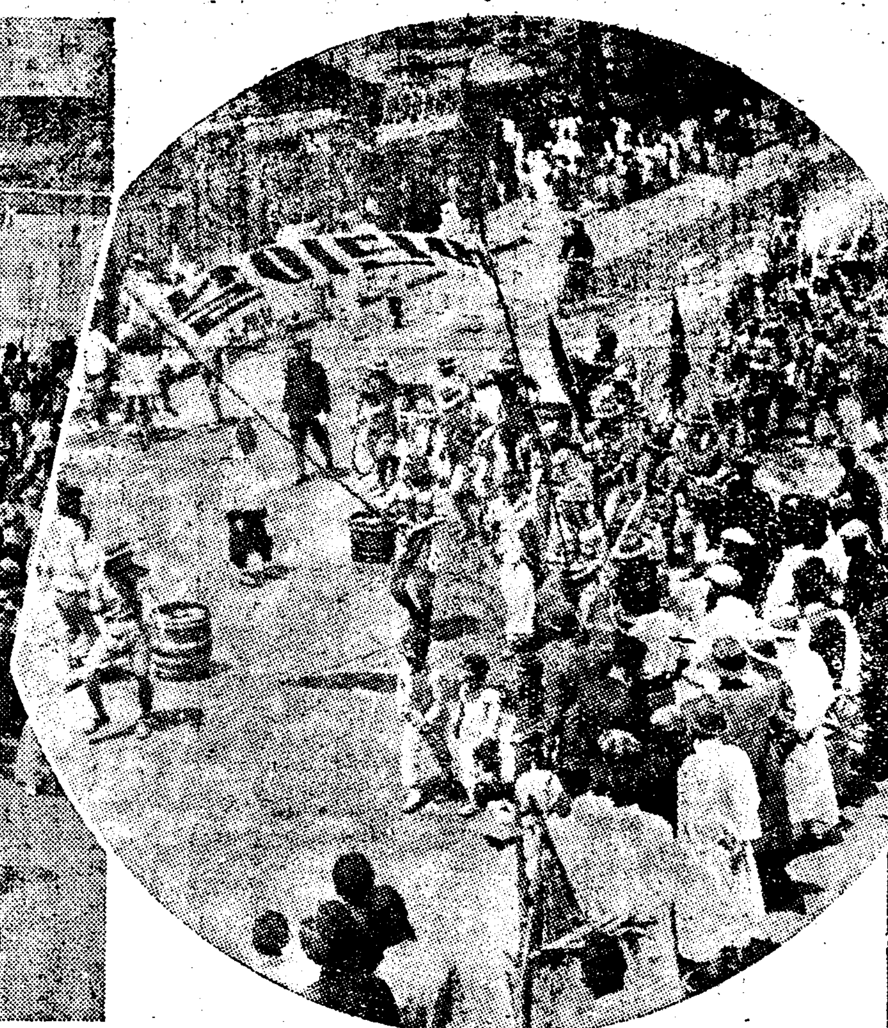
(三) 保險金分割拂
모힌 保險金을 受取한後의 安心을 엇기 爲하야 分割拂의 指定을 勸합니다 利息附의 定期收入을 永久히 確保하는 便法으로서 最上의 制度입니다

(四) 最高率의 配當
新種養老保險에 對하야 斯界最高率의 配當을 實行하야 一般의 注目을 惹起하야 本年度에는
第一期配當 (昭和五年度契約에對하야) 保險料의 五分
第四期配當 (昭和二年度契約에對하야) 保險料의 二割
을 現在加入者에게 드리고잇습니다

(五) 健康增進施設
我社獨特의 健康增進施設은 只今其業蹟이 世界的으로 注目밧는바이 되어 健康相談에 各種檢査에 冊子刊行에 無料奉仕를 繼續하야 感謝를 밧고잇습니다

前記各項의 奉仕施設의 對하야는 各各그 案內冊子의 用意를 하고잇습으로 廣告를보신 新聞名記載後 營業課規畫係에 申込하시면 卽時 贈呈하겟나이다

東京丸ノ內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春日駘蕩・어린이날에運動會

人波萬頃・行樂氣分果然爆發的

륙일은 오월들자바서 첫 일요일—동대(東大)의 푸른볼도 부데위하지안는 구름퇴 하나업는 유려빗의 하날·그러고 여의도(汝矣島)의 백사장을너머 필블 파가티 장안을 욱개여오는 탑스러운 훈풍(薰風)의 압박!바다에는 저기압(低氣壓)의 작난도업고 오월의 햇볕은 곳넘시명랑하고 상쾌하다 어날—신록의 새 넘어 향그러운 설풍 장충단(獎忠壇)의 욱어진 숲밧 그늘에는 사십만시민의 그 사분의일 가량을동원하야 성대한 경성상공련합운동회(京城商工聯合運動會)가 폭탄과 인괴속에 열리엇고 성북(城北)휘문고보 운동장에서는 열세번재 돌을 맛는「어린이조선」의 감격의날「어린이날」 기렴식이 거행되엇고 동대문밧 식은「그라운드」에서는 남대문시장 상인련합운동회가 날을 가치하야 열리어축복바든 첫여름의 이하로는 전시의 흥분과 환희로서 폭발되엇다

어린이날노래도놉히 感激에싸인街頭行列
全市어린이날氣分橫溢

권조선 륙백만의 어린이들의 ▥조분가슴▥에 크다란감격을 비저내게하는 멋첫「어린이날」은다처왓다 륙일 서울서는 정각인오커열시반을 귀롭하야 동광(東光)정진(正進)신우(信友)동아(東亜) 천도교(天道敎)조선소년군재록심사호대 왕십리(往十里)취운정(翠雲亭)조선군 제오호대 금화(金華)조선소년군제심산호대등 열곳소년단체 이천오백여명이 기념식장인 계동(桂洞)휘문고보(徽文高普)운동장에 집합하엿다「조선의 새싹은어린이」「미신을타파하자늙은어린이 ▥의무교육▥ 실시」등의슬로간등쓴 오색의기빨을 고요한오월의아츰하늘에나빗기면서 씩씩한 의기가장내에 넘치호른다 이윽고열한시가되자 천도교소년회의정성호(鄭成昊)군아단에올나서 개회를선언하엇다 바람도 일지안는첫여름의 아츰하늘에끗업시 퍼저가는 유량한라팔소리와 군악소리……그러고 수천의 어린입들이 찬풍에향하야부르는 우렁찬 어린이날노래……본부의고장환(高長煥)군의 식사가잇슨후 천도교 소년회의 정세호(鄭世昊)군이 ▥선서문을▥ 랑독 하엿다 뒤를 니어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와 천도교청년당수(天道敎靑年黨首) 조기간(趙基栞)씨의 의미심장한 축사가잇슬셔마다장내에는 우뢰와갓흔 박수가 이려낫다 정오경에 식은필하고 소년군의 악대를 선두로하고이천오백의 어린이는 식장을떠나서 여름을 재촉하는명랑한햇볏을바드며대오정연하게행진을 시작하엿다 거리를넘는 구경군속을헤치고 ▥오색기빨▥을 노피 들고 입마다 어린이날노래를 부르며 수은동(授恩洞)큰거리를나려와 종로(鐘路)한길을 지나서 광화문통(光化門通)광장에이르러 오후한시가량 뒤흔드는 장쾌한만세삼창으로서 해산하엿다

新綠의奬忠壇에 三百餘健兒勇躍
商工聯合運動大盛況

륙일은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가주최하야 제팔회경성상공련합 대운동회를 개최하는 날이다 아츰여듧시반경에 운동회에참가하는 삼십오개 단체의 삼백사십여명은 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에모혀서 대오를지은후 진기한광고행렬을 사히에 꾀겨가지고 악대를 선두에세우고 종로큰거리를지나서회장인장충단공원으로향하엿다 거리의좌우편에는이찬란한행렬을환영하는군중으로써더러서문자그대로 사람의 담장을이루엇다 그리고 장충단 방면으로가는 전차는차마다 초만원이오 경성「그라운드」한큰길과 황금정통저목부근 행길에는 첫여름의 성장을차린 남녀로소가 떼를지어 장충단으로몰켜처간다 삼시간에 회장을 구버보는 세면의솔밧은 힌옷입은관중으로 빈틈조차 남기지안코차버렷다 열시십오분경 참가원들의입장이필하자회장박승직(朴承稷)씨의 개회사가 잇슨후 여어김규면(金圭冕)씨의주의가잇고천일약방(天一藥房)대표 최진표(崔鎭杓)군이 선서문을 랑독하엿다 다음에 심판부의박창하(朴昌夏)씨의 주의가 잇고 열한시경부터 쾌청한 한울을찌르는 한방의「피스톨」소리와 함께 이백「메-틀」경주로부터 경기의막은 떠러젓다 경기의경과는다음과갓다

廣告意匠엔 天一藥房優等

상공련합운동회에서 가장 이채를띄우고잇든 상점광고 의장행렬은 모다각기 상품과상점의광고에대한 고심의의장을 하엿든데 이에대하야 심사위원회에서는 엄밀히 심사한결과다음과가티등급이 결정되엿다

▲一等 天一藥房 ▲二等 紋昌商店 ▲三等 樂庭社 ▲四等 三好化粧品商會 ▲五等 萬化堂

◇競技經過

【二百米】▲一隊1金班石(東亞) 2?英榮(兄弟) 3丁?顯(天一) ▲二隊1尹達?(安?圭) 2李在?(三好) 3金允昌(兄弟) ▲三隊1申京玉(?商) 2金?? (紋昌) 3?福柱(天一)

【小包?走】▲一隊1?俊秦(天一) 2宋?浩(天一) 3金?銘(東亞) ▲二隊1金貞?(紋昌) 2?音(天一) 3?東烈(東亞)

【?走】▲一隊1?? (東亞) 2印光鉉(天一) 3林?燮(?昌) ▲三隊1?信俊(和信) 2陳順昌(紋昌) 3李鍾大(天一)

【女子百米】1金貞漢(三好) 2黃?寶(三好) 3金玉順(三好)

【四百米】▲一隊1李?鎬(天一) 2李?成(兄弟) 3張?童(日出) (以下明日夕刊에)

皮革商店員勤續者表彰

경성피혁상조합(皮革商組合)은 속첨원표창식은 륙일오후 신일시 상업회의소에서 거행되엿다 표창바든점원은아래와 갓다 (사진원내는 최수뎡씨 기타는표창바든점원)

被表彰者氏名

滿十個年以上勤續表彰者 裕豊 崔錫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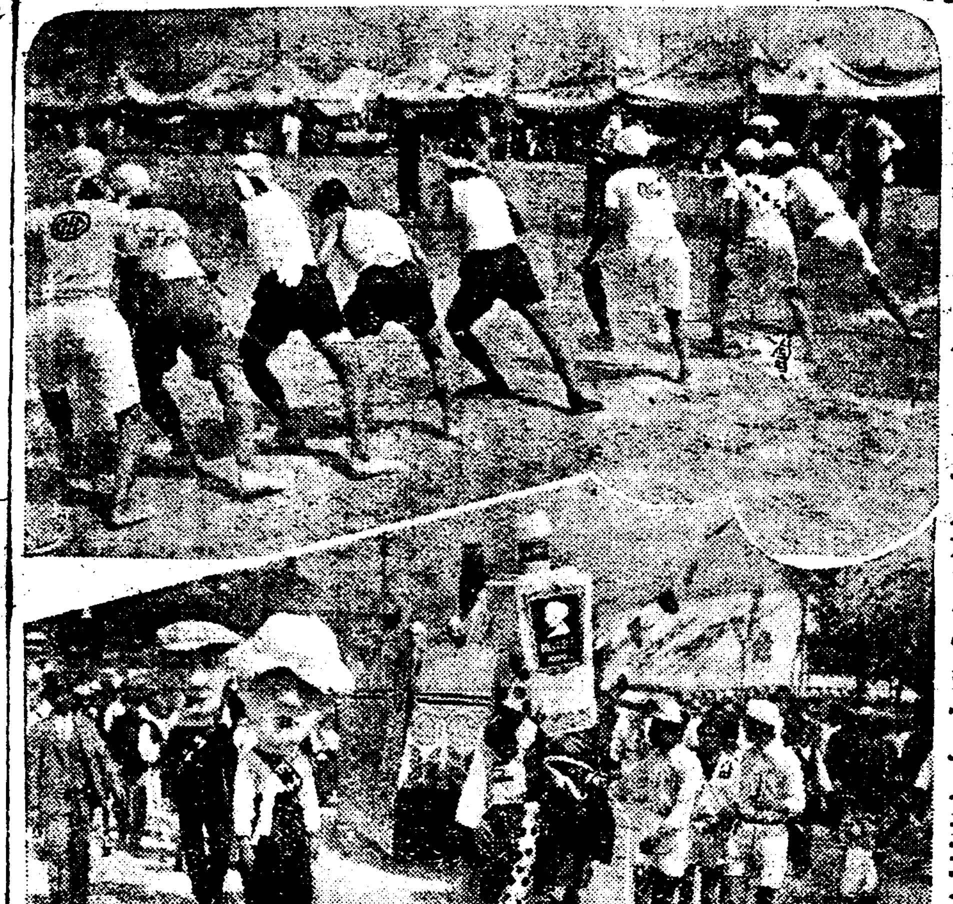
一、滿五個年以上勤續表彰者 (十四名) 東西 李春瑛 裕豊 徐元鎔 桐皮 林相鎬 永豊 張桂龍 裕豊 朴鶴洞 西 丁賢誠 同 李漢煥 豊 長谷川博彦 德永 洪淳裕 學 申昌福 東西 朴亨 裕豊 入井?? 朝皮 高?? 金德弘

五百圓强奪 短刀로襲擊

【楊州支局電話】 경긔도양주군은현면봉암리(楊州郡隱縣面鳳岩里)에서 경성모지주의사음노릇을하는남준희(南駿熙)(三二)씨는오일에 경성에와서 지주에게서 돈오백원을 바다가지고집으로 도라가다가 륙일오전한시경에 은현면봉암리고개에 이르자어떤자가 돌연나타나 단도로목을 질으면서 달려드러남씨에게 중상을식히고 그가가진현금 오백원을 강탈도주하엿다 이급보를 접한양주서에서는 곳비상소집을하고 범인검거에 노력중이라한다

隧道工事中八十名生埋
모다생사불명

【奉天五日發】 봉천(奉天)령사관착전에의하면 이일오후네시경에 열하성원(熱河省)서쌍이리의지점인수천(水泉)에서공사중인「턴넬」안에서 지반이 문허지어 작업중인동아토목고업회사 종업원 일본인두명과 만주인칠십팔명이 즉사하고만주인공부 팔십륙명이 매몰되야생사가불명하다한다



畵報說明

우편으로부터 어린이날 긔렴식장과 행렬, 다음은 장춘단 상공련합운동회전경과 동운동회광고의 장행렬, 아래는 남대문시장 상인련합운동회광경

南大門市場 運動會

남대문시장 상인련합운동회는 예정과가티 륙일오전열시부터 동대문박 식산은행운동장에서 수만관중환호리에 개막되엇는데 출켜한전여건아들의 활발한경기는진행중에잇다 (경과는명일석간에)

農村振興運動에滲透한 五百思想靑年檢擧

【光州】 지난 이월니래 전남경찰부 고등과의지휘하에 남해안방면 장흥(長興)해남(海南)등 오륙군에서 오백여명의 농촌청년들을 질풍신뢰적으로 검거하야두고 그동안 불분주야 취조를 진행한다함은 본보에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최근에이르러 대강취조를 맛치는동시에 일방으로 사건의혐의가 희박한 분자는 속속석방한다는데 그조직체의 내용은 취조관들이 말하지안음으로 알기어려우나 들은바에 의하면 수년래 총독부의 대방침하에 박각 행정관청의지도로 농촌진흥운동을 각지에산재하여잇는 주의청년들이 내부적으로 침투하야 이것을 전취하라든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사건에 소위 〃십파〃라는 혐의로 삼월이십일경에 왕재일(王在一)등 과가치 경찰부원의 손에체포되여 그동안 장흥(長興)경찰서로 압송되여 취조를밧고잇든 광주읍사정(光州邑社町)권야수는 일단취조를맛치고 지난 이일에 장흥서로부터 석방되엿다고한다

力技와 機械體操大會

超人的怪力을發揮하야 金、朴、崔三君連覇
機械體操部에李君이優勝

중앙긔독교청년회주최와본사후원의권조선력기 긔계체조 대회 격승성기는 오월밤 여덜시부터 종로청년회 운동실에서 계속거행되엿다 동양적패권을 목표로 각력사들의 의기는 자못극도에 달하니 만장관중으로부터 연발되는박수와 환호성과함께 초인적괴력을 발휘하야 관중목에종래긔록을 읽신시켜 우리력기계의명원을 친란케한비 잇섯는데 각계급에잇서 작년도 선수권보지자인 경경체급의최금석(崔今石)중체급의김용성(金容星)중체급의박명준(朴明濬)상군은재차선수권을 획득하는동시에 긴종목을동하야 자기가 지은작년긔록을 무난히돌파하니 각선수들의력량(力量)이향상됨을증명하엿다 긔계체조부에잇서는 중앙체육연구소원 리원규(李元圭)백룡기(白龍基)양군의 동지권으로 평행목, 도립대, 철봉등 의숙련된 묘기로서 관중을 놀나게하드니 결국리군이 제일위를 점하엿다 이리하야 입상선수에게 동대회본부위원 장권(張權)씨로부터 상장과상품을 수여하고 동열한시오분 대회는성황리에 종막되엿다 (당야의 건적은 아래와갓다)

【力技成績表】

級別	順位	體重	推上	振上	引上	擧上	得點
輕輕	1崔今石(研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趙命夏(開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李容彬(體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輕體級	1金容星(體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金鍾圭(勇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梁雨龍(勇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體級	1朴明濬(開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金泰植(勇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李根植(勇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機械體操部】

順位	平行木	跳越臺	鐵棒	總計
1李元圭(體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白龍基(體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普成專門에 柔道部創立

보성전문학교에서는 이번처음으로학생유도부를조직하엿는데 신교사낙성전까지는 조선연무관에서 련습케되엿다하며 리경석(李景錫)씨를사범으로 초빙하기로하고 부장은옥선진(玉璿珍)씨가피임되엿다한다

사진은=入賞選手一同

天氣豫報 曇後一時晴

弱한低氣壓은 上海에잇서서東進하고잇고高氣壓은 日本東北海上에 잇서서朝鮮方面에퍼저잇스며 滿洲에도低氣壓이잇나 그때문에朝鮮의氣溫은不安定하야 木浦는今朝에小雨가잇섯고其他에도大概는흐리다 明日은흐리다

昨日最高 二五度九
最低 五度五
今朝最低 一〇度九
今日正午 二三度九

◆이것을못보면大損◆

靈効—神과如한 强精秘藥의話

病弱한身體가무럭무럭튼튼히 老年男女도딴판으로更少年

世上에 藥種類는 幾千種잇지마는、어떤것이나 藥이 効能잇는가는効가업다고하는中에、오직 한가지神과 如한靈効도 日本全國은勿論멀리 西洋에까지그 이름을 떨친 新發明藥이잇다。 오세로라하면 눈이노랑 西洋人까지 今日에는 얼는알어들을만큼 有名한데、發明된지 아직二三年도못된 오세로가어째그리 有名해젓나。그것은 効能이 너무나優秀한때문이다 世界無類의名藥 오세로는 어떠케 有効한지大綱說明해보라한다。

胃腸을强케함

病人이라는것은 반드시胃腸이나쁘다。말하자면 胃腸이弱한故로病이생기는것이다。 그런데오세로를먹으면아모리弱하든胃腸도무럭무럭튼튼해지고 빼만남은사람도곳옹룡하게살이찌며腹痛과설사가그치고또大便이멋칠식업든사람은順하게뒤를보게된다。

元氣가난다

感氣를조곰늣거나熱이조곰나거나頭痛이잇서도胃腸만튼튼하면 元氣가 衰하는일은 업다。元氣는 사람을 病에對하야守護하는番兵인데 이것이斷然하게 衰한病人은 胃腸의故障때문에 흐르몬이라는 精力의 源되는것이體中에 적어지는때문이다。이러한境遇에오세로를 먹으면 사뭇元氣가나서、病가든것은어느름에날려가버리고 정그린 얼골이빙그래 해진다

性慾과體力

늙엇거나 病으로나 左右間性慾의減退처럼 섭섭한것은 업다 特히四十前後부터 六十가까이된 사람이한창에 性慾이衰해서는정말재미를 모르고 世上을지날박게업으니 이래서야 世上에 낫던本意가 엇거니와 이러한사람들에게 오세로는 神助藥이다 오세로를조곰繼續服用하면二十時代의旺盛한精力이湧出하게되고 보고듯는것이모도 재미잇고얼골의주름살도펴저서 딴판으로更少年이된다。

포근포근덥는다

오세로를 服用하면 新鮮한血液이만이 增殖되는故로 身體가포근포근더워저서 치위타는사람도 엇한겨울이어도 손발이덥고 食物이아모거나 맛이잇게먹는故로 自然살이오르는것이다

偉人頭山滿先生曰

이러하게잘듯는靈藥은처음

老生이 昨年에拙者下藥에게서 오세로라는 無臭大藥劑를勸하기로 試驗服用한結果 胃腸에非常히조코 血色조코 特히元氣旺盛해저서 從來에못하던 어려운일도 척척해내게되엇다。 以來오세로는 持藥으로一日도 노흘수업슬만큼 아니라今後도 平生愛用하라고한다。各方面에서 今日까지 편여러가지 "強壯劑"라거나 "精力劑"라는것을勸해야 相當히 服用해보앗스나이오세로가티 잘듯는藥은처음이다。참말 靈效藥이라고 할만하다。 國家非常時를當하야 이러한 靈效藥이 發明되어 多數한病弱者를 救濟하는것은 진실로기쁜일이다。 老生은 藥의압잡이노릇하기는죽기보다 실여서手수한번도한일이업지마는오세로마는 너무도効果가 顯著하야반갑기짝이업슴으로 知人、友人은勿論 모든老生의關係者에게 絕對의自信을가지고 勸하는바이다。 特히身體가 弱한사람을보면 到底히 默過할수업서 데그것이 또大端히 感謝를밧어 老生許에 禮狀이每日가티온다

試驗用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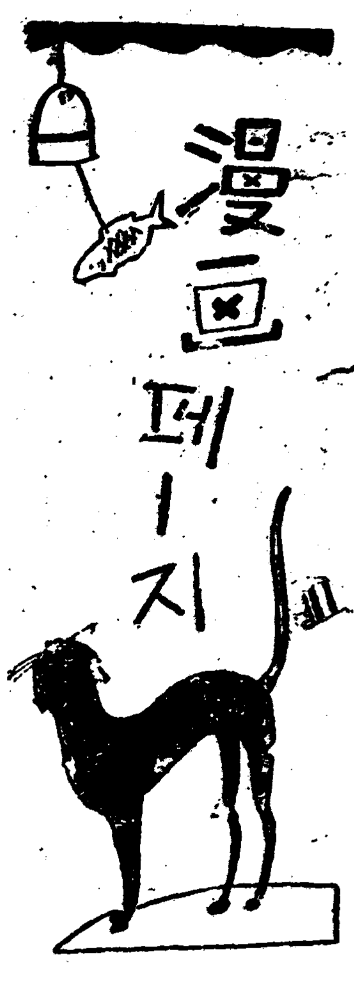
오세로 가늘라운靈效가잇는것을 實際로試驗해주시사고 犧牲的으로試用藥及文獻無代進呈하오니前記本舖로申込하십시오

左와如한病은 대번에根治함 곳試驗해보시오

東洋古來의 不老長壽妙藥과 西洋의有名한藥을 合해서만든 오세로는百病을一藥으로 根絶하는靈効가잇서 胃腸病、肺病、喘息、感氣、便秘、下痢、蛔虫病、産前産後、老衰치유라는데 等은 四五日繼用하면 奇妙하게得効하거니와 不治虛弱한 사람과腎虛는 多少長期의連服으로얼마나잘듯는지를 試驗해보시오 ×

오세로의藥價는 一二〇粒一圓二十錢、二二五粒二圓、四五〇粒三圓五十錢、七五〇粒五圓 千八百粒十圓이오 各地藥店에서販賣합니다 直接注文은藥價에 送料四十五錢加算 東京銀座一ノオセロ洋行(振替東京七五〇〇三番)으로 送金申込次第送藥합니다

朝鮮大取次店 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大藥房



자식이 잇서도 고통 업서도고통

夕影

「제-기 돈이잇스면 무엇해 슬하에 자식이 잇서야 락이잇지」 「제-기 자식만 만흐면·무엇해 돈이잇서야 사람들을 맨들지!」←

어린애도手提品의하나?

夕影

모던—부부가 어린애를 걸니껄고 나아가면 거름역「스텝」이맛지안코 갑갑해서 오리장수본으로 어린애를 축혀들고 대활보、그아이를 남이가서가겟다면 손세간이 주러진다고 악을쓰고 쫏차가 잡을터인가? ←

압바、어부바—아가어부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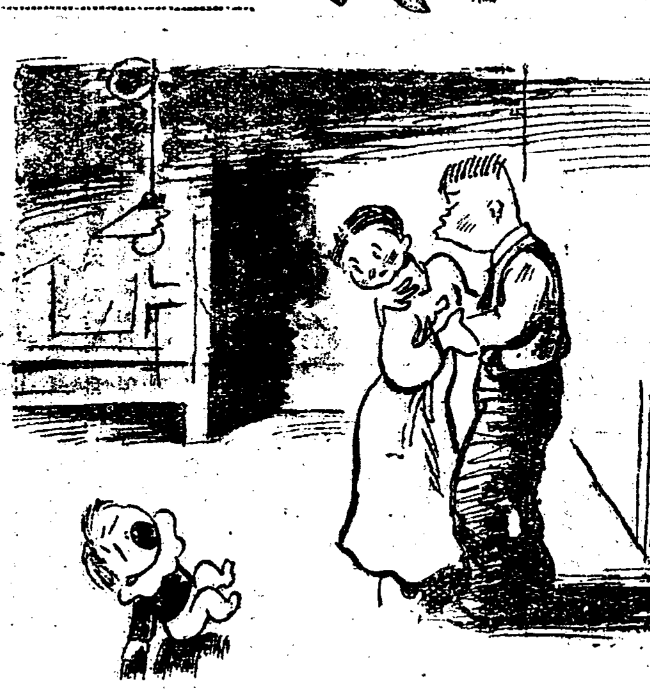
夕影

「압바—나이부바」하면 압바더러 어버달라는 수작이나「아가、나、어부바」하면 압바가아가더러 어버달라는 수작、로령강이 방공을 지나나이폴을보고는 「쳇쳇쳇쳇쳇 옛날가트면 손자까지보앗슬놈이 저게 저게……엥……」 그러나 이말도 귀여워서 하는말

귀여운手荷物

熊超 →

맘다툼보다 솟뒤댄듯이들는大觧、모처럼 氣分轉換이되여「키스」作戰에 이르랏한대야——아! 엽해「여보 그만 둡시다 우리가 싸우는 줄알구 저애가 또우는구려」



一을缺한明計算

熊超

오래간만에 친구집을차즈니 門에禁줄
A「여보게 고초를 드개석 달앗스니 웬일일까」
B「아마 사내쌍동이를 나엇나베」
C「쌍동이를 나엇슬말이면 三쌍도 둘은 되겟네그려……체— 생낙래 별은 어되남엇겟나」

아바 도이이
마엄 도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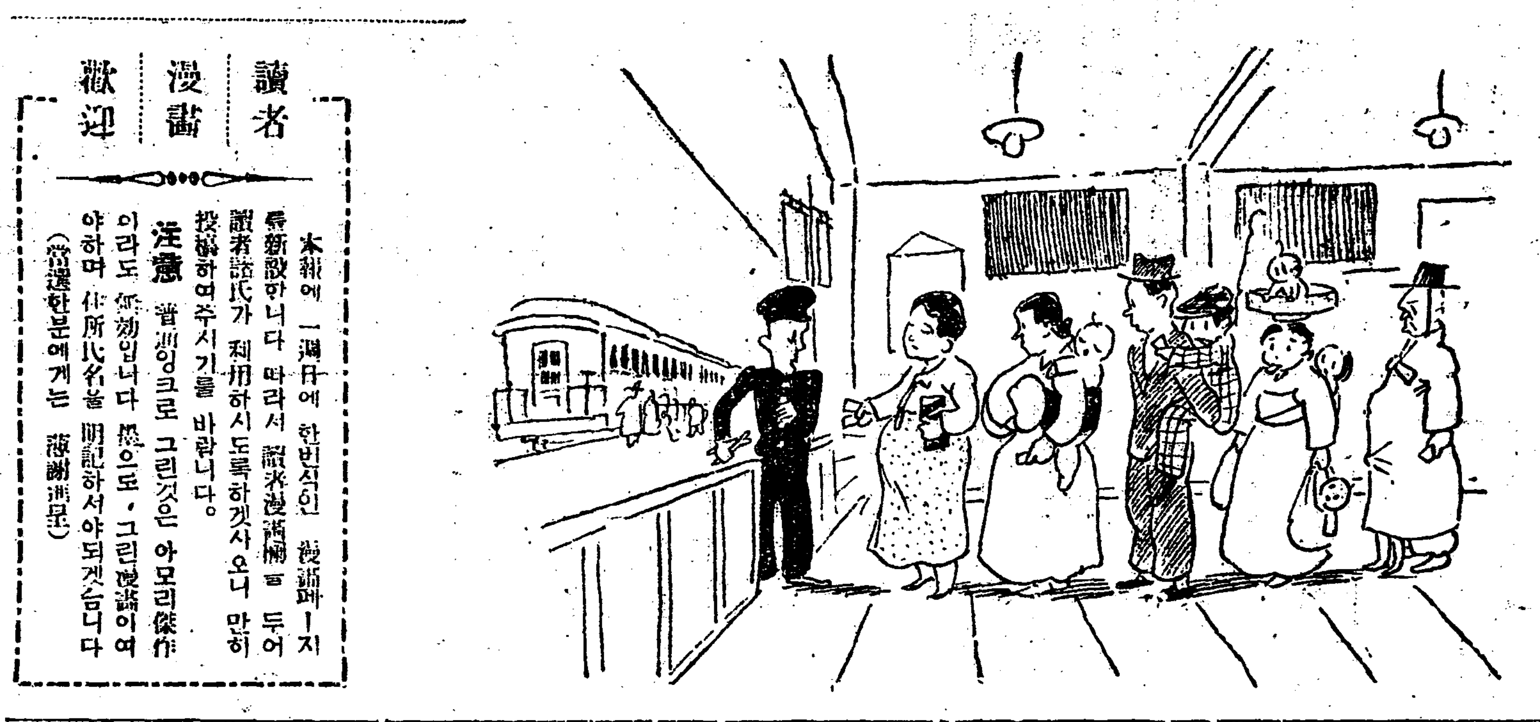
影夕

저 편회사사 는거눈 애린어 허마엄 지는히보 ㄷ가하압켜 활사 판 편7,아ㅎ 도길 애닭끼,편그 「—바압」 도고 리데 가하압 논이가 시다 떤려그 떠는하 야가거나 고 —「—마엄」 고보거니떤 또 다이갈할신망

二人一行

熊超 ←

아직 뱃속에든 자식의명정、사랑으로 한목술을 주고시픈 그어머니의마음 「자-표두장」 똑々이 보고 찍으서요



新小說豫告

偵探小說 艶魔

作者 徐東山
挿畫 金熊超

보지조간 사면에련재되여오든 현상당선소설「꼿풍우지난후」는 그동안 신문소설계에 커다란 발자최를 남기고 근근 끗을 악게되엿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울소설은 서동산(徐東山)을「편내임」으로한 모중견작가의 력작으로된 탐정소설「염마」(艶魔)입니다 창작 탐정소설의련재는 조선신문계에서 드물게보는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번역품가튼종류의 련재가 혹잇섯스나 실력잇는작가의창작품은 좀처럼 보지못하엿습니다 탐정소설의렵기(獵奇)그대로 작자의씨명은 발표치안습니다 마는 특별히 이방면에 조예가출중한 작가로 근래에못볼 력작품이올시다 소설이 탐정소설이고보니 천기를설은절대 금물이올시다마는 듯기만해도 등에찬땀이흐르게될 끈어진손까락한토막을 주심으로 정체모를 미인의 등장 잔인(殘忍)혹모토로한 적단(賊團)의 활약、늙은이의눈물、젊은이의 우슴、렵기(獵奇)는 이혹늙부르게되고 의혹은 렵기를손짓하야 회수를거듭하는데따라서는 독자들의손바닥에 땀이마를때가업슬것을 장담합니다 그러고 이 소설을 한경더 빗나게할삽화는 내남업시 그의재필을갈채하는 웅초김규택(熊超 金奎澤)씨의 채관(彩管)을빌리게되엿습니다 그글에 그 그림! 물일중에 나타날 령롱할 그지면을 기다립시다

★★ ★★★

讀者漫畫歡迎

本報에 一週日에 한번식인 漫畫페ー지를 新設하니다 따라서 讀者漫畫欄을 두어 讀者諸氏가 利用하시도록하겟사오니 만히 投稿하여주시기를 바람니다。

注意 普通잉크로 그린것은 아모리傑作이라도 無効입니다 墨으로·그린漫畫이여야하며 住所氏名을 明記하서야되겟습니다 (當選한분에게는 薄謝進呈)

오디오

五月六日(日曜)

◇同六時 童謠 一、齊唱 어린이날노래 二、齊唱 메밀꼿 三、齊唱 물새 四、獨唱사공의노래 五、齊唱 비야비야 六、齊唱 초생달 七、獨唱 달맞이 八、齊唱고향생각 九、齊唱봄나드리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指揮元裕珏 (伴奏) 피아노 劉三烈 第一바이올린 金鍚鎭 第二바이올린 金聖哲 클라리넷트 尹喜永、트름본 金泰書 아코듸온 金文屋

◇同六時二五分 家庭講座 兒童과家庭 高長煥

◇同七時三〇分 獨唱 一、봄의信仰…슈ー베ー트作曲 二、嘆息치안으리…슈ー망作曲 三、자장가…브람스作曲 四、아그대엿든가「歌劇椿姬中」…베르듸作曲 피아노伴奏 鄭勳謨

◇同七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黃昏騷動 全一景 能工堂作 金信 編 『配役』 광서방…金昌基 그의妻…金顯鎬 貝청지의妻…趙靜海 두부장사…柳春 其他 서울라듸오드라마同好會

◇同八時三〇分 音律 鐘山會 玄琴李彦植 洋琴李承煥 奚琴池龍九 短簫尹斗德 笛趙載勳 長鼓李章夏

◇同九時 低音獨唱 一、自己百姓을위한 멘델스존作曲 二、百合花를생각함 타립프作曲 三、새처럼날너감 따나作曲 四、父母와갓홈 스캇作曲 五、主의뜻대로함 웨ー버作曲 六、오래참음 멘델스존作曲 金仁湜 피아노伴奏 영錄

五月七日(月曜)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短歌 白鷗야 二、새타령 三、興打鈴 四、세동무 五、사발가 六、新아리랑 七、노래가락 八、唱夫打鈴 林明月 伽倻琴 李日善 奚琴 金宗業

◇同二時〇分 趣味講座 金剛山의三大特徵 金長文

◇同六時〇分 童話 自轉車 金鄭道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一) 鄭寅燮

◇同八時〇分 西道소리 一、긴아리 二、타령 三、긴도라지 金春紅 四、孔明歌 五、銕城八景 六、뒤미七星 七、다물박아타령 李晃雨

◇同九時〇分 連續野談 孤城의달(一) 尹白南

五月八日(火曜)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小春香歌 林山紅 李正云

◇同二時 文藝講座 病的心理와文學(一) 金東仁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봄동산 金泰源 作曲 二、獨唱 (가)봄이오니 金聖泰作曲 (나)강아지 金聖泰作曲 (다)자장가 柳基興作曲 三、齊唱 반듸를 金聖泰作曲 四、獨唱 (가)병아리 金聖泰作曲 (나)제비……孟千永作曲 (다)밤안우체통……金聖泰作曲 五、齊唱 어린음악대……金聖道 作曲 延禧協成主日學校 指揮 李壽柱 피아노伴奏 金聖道

◇同六時二五分 家庭講座、어린이와玩具(一) 崔泳柱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戀愛와結婚(二) 鄭寅燮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방아타령 鼓手 池龜九 宋萬甲

◇同八時三〇分 連續野談 孤城의달(二) 尹白南

新地主에反抗 舊作人側蹶起

끗까지抗爭할氣勢

【밀양】 경남밀양군하남면명례(下南面明禮)에잇는전지주외강호태랑(外江虎太郞)의토지삼십정보를작년 십이월에부산에잇는분간가초(藤間哉助)에게 매도하엿다는바 지주복간은하남면백산(下南面栢山)에잇는송하춘남(松下春男)을관리인으로정하야 금번사원에 본토지소작의대변동을 시켯다하는바 본토지는명례(明禮)백산(栢山)해양(海陽)대평(大坪)등지에헌터저잇는토지로서 전소작인오십이명으로 소작하야왓는데 작년의전면상태를 당하고도 소작료는완납하엿는데 지주가 갈덧다하야 구작의지벌이상을 이작시키는것은너무나가혹한행동이며 본토지매정보에 대하야소작채서신원식에관다는것은 더구나 참고잇지못할 사실이라하야 지난 사월이십일일에 진정원십일인은최수홍(崔守洪)(三三)을진정대표로정하야 진정서를 관계당국인 밀양군에 제출하엿다는데 일반은하회만 바라고잇다하며 문제는자못확대되리라고한다

婦女轢殺한 運轉手送局

【려수】 지난사월십팔일오전구시오십분경에 려수읍 화물자동차영업정남태(鄭南泰)씨소유의화물자동차 운전수 박경수(朴景云)(三元)이는 생선을만재하고 려수에서 순천으로향하든도중에 려수군 쌍봉면봉계리(麗水郡雙鳳面鳳溪里)구내외 대곡교(大谷橋)상에 이르러 마침그곳을 통행하든박보심(朴甫心)(三五)이란여자를 강탈(強奪)시키게 되여 박운권수는 곳피해자를실고 순천 도립의원(順天道立醫院)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 드되여 그의일인 십수일에 사망해버렷다는바 순천경사국에서는 사체를해부한결과 상해치사로 인정되여 박운권수는 려수경찰서에 구속되여 오래동안 취조를당하고잇든바 마친내지난 사월삼십일에 여러가지증거물과 함께 순천검사국으로송치되엿다고한다

貧賤을悲觀 青年男兒自殺

【거창】 지난사월이십구일밤 시반경에 거창읍내상동 리종자(李宗子)(三?)의 차남 리순조(李順祚)(二○)가남모르게쥐잡는약을먹고고민하는것을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응급수당을 가하얏스나 효험을 보지못하고이튼날 오전여섯시반에 도라오지못하는먼길로 향하얏다한다 원인은 리순조는 어려슬때부터생활이넉넉지 못하야 공부도못하고 일정한 직업도업서서세인의 천대를 밧지못함으로 항상이를 극도비관하든끄테 꼿따운 청춘은 후세상의 행복을차자이세상에서 영원히사라저 버렷다한다

小作權剝奪 羅州에八百件

一月로三月末까지現在

【라주】 수차의 수술을 거듭하여가면서 난산에난산을 거듭하여오든 농지령(農地令)은 그일시를압두고 회목하고 교활한 지주、사음배들의권리행사가 무인지경을것은 반면에 이미과경(起耕)하야 파종(播種)중임에도불구하고 박약한구실로 작권을 박탈당하는 무방위(無防衛)한령세농(零細農)의비수(悲慘)와 참담한대립은 나날이 심하여진다는바권남지방의 일부러 삼월까지의 작권이동이 무려 팔천여건이요 개중 라주군에만 동괴한내에 팔백이건이라는데 나날이 더심할뿐으로 적어도사월말까지에는 일천수백건에 달하엿스리라 함으로 령세농민의 페농(廢農)도 적지아니 작차그들의생로가 과연 막연하다하며 일반은 소란한농지령의 권주곡에 귀를하고잇다한다

地方人事

▲小管四郞氏(陸軍憲兵伍長)羅津憲兵分隊赴任人事次去五月二日本報羅津支局來訪
▲劉時天氏(審越公醫)大浦轉任人事次本報大浦支局來訪
▲申榮吉氏(東面大禾里簡易學校訓導)赴任人事次本報雄基支局來訪
▲朴興陽氏(訓導 倭舘公立普通學校新任人事次去三十日本報倭舘支局來訪

그女子의一生 (75)

戀愛篇

春園 作
夕影 畫

금봉은 마츰내 상태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엿다。『예라 가보자』하는것이엿다。상태가 저를 만만히 보는것이 불쾌하지마는 상태가 자조 차자오고 몸을 건드리고 하는 동안에 금봉의 몸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충동이 일어난것이다。상태가 하는대로 몸을 내어맥겨보자 하는 유혹을 늣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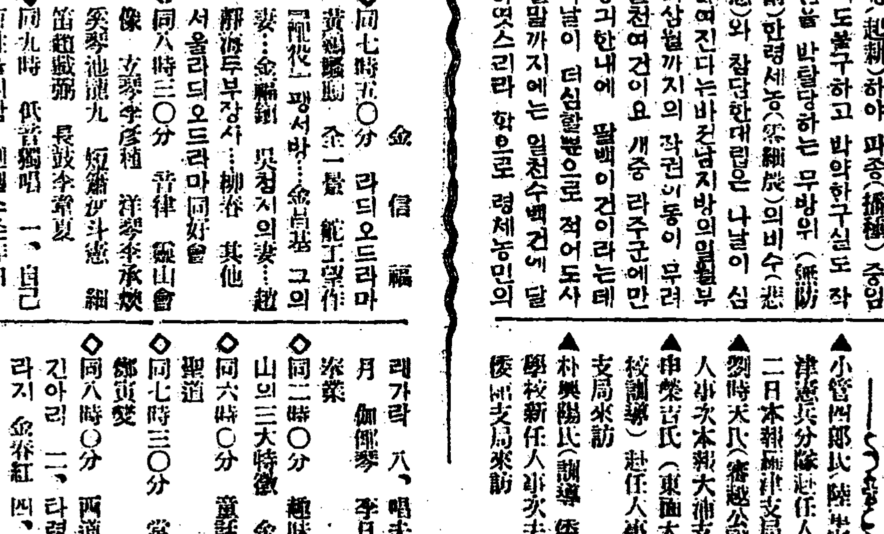
『어듸 가시우?』

하고 주인마누라가 물을 때에 금봉은 좀 어색한말로、

『어듸 좀 댕겨와요』

하고 달아나는 모양으로 문을 나섯다。

상태는 의긔양양하야 짓거리면서 걸엇다。수도교에서 전차를 타고 동경역을 피하야 우부터 품천정거장으로 갓다。상태가 차표를 사러간 동안에 금봉은 대합실 한편 구석에 차시시간표를 보는체하고 벽을 향하고 서잇섯다。모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뿐이지마는 다늘 저를 보고、



『이년、너 누구허구 어듸를 가느냐』

하고 책망하는것만 가타서 니마와 등스골세서땀이흐릿다。

『아니다。내가죄롤짓는구나』

하고 금봉은 정거장에서 뛰어나와서 우산으로 낫출가리우고 헤갈쪽으로 달아낫다。

금봉은 권차를 탈 생각도 아니하고 북으로북으로 길잇는데로만 걸엇다。등뒤에는 상태가 칼을 빼어들고 따라오는것만 가탓다。

금봉은 천악사라는 절로들어가는 골목에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앗다。뒤에는 것는 사람 자전거탄 사람이 만히따라오지마는 상태의모양은 보이지아니하엿다。

금봉은 손스수건으로 이마와 코끗에땀을 씻어내고 천학사라는 절 속으로 들어왓다。고목그늘에는 시언한 바람이잇고 매암의소리가 들렷다。수업는 무덤의 비석과 인도스글자로 쓴 목패놀사이로 금봉은 원허버린 무덤이나 찻드시 헤매엿다。금봉은 적수의사(赤穗義士) 마흔일곱 사람의무덤잇는 곳을 지내어서 백금(白金)이라는데로 향한 뭇으로 빠저서 학교로 향하엿다。

녀름을 난 학교人마당에는 풀이 만히 자랏다。마치 금봉의 마음人속에、방학동안에、몸뇌 여러가지 괴로움뇌 품이자란것과 가탓다。

금봉은 중용한 학교人물을거닐엇다。개학이 며칠아니남은때라 늙은 하인부자가 학교마당에 풀을뽑고 잇섯다。

피서 갓다가 일즉 돌아온 랜듸스박사네 아이들이 조그마한 자전거를 타고 작난을하다가 금봉을 보고웃엇다。

금봉은 긔숙사를 돌아보고 학교 후원 수풀 속으로 그넘어 괴로운 마음을 진정하려하엿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것이 깃브기도 하지마는 상태에게 말도 아니하고 도망한것이 미안도하고 비겁하기도 하엿다。그것만 아니엇나、마치 청춘의 질거움의 썩조흔기회를 노처버린것이 아깝기도하엿다。

금봉은 집으로 돌아가기가 실혓다。집에는 상태가 와서 기다리고 잇슬것만 가탓나。어떠케 상태를 만나나、감아 다시 상태를 만날수는 업섯다。

금봉은 사김선생의 집을차잣다。사김은 늙은서양부인이엇다。미세스 랜듸스라는 부인으로 그남편 딱터랜듸스는 학교에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의 큰딸 미스 랜듸스는 영문학과 수사학을 가르치고 잇섯다。

랜듸스 부인은、

『오우 금봉。녀름스동안 잘 잇섯소? 조선 갓다가 언제 왓소?』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금봉을 마잣다。

『저는 조선 안 갓습니다』

『오우 참금봉 조선 안 갓지』

하고 랜듸스 부인은 웃으며、

『녀름 동안 동경 잇섯소?』

『네。영어공부했습니다。』

랜듸스부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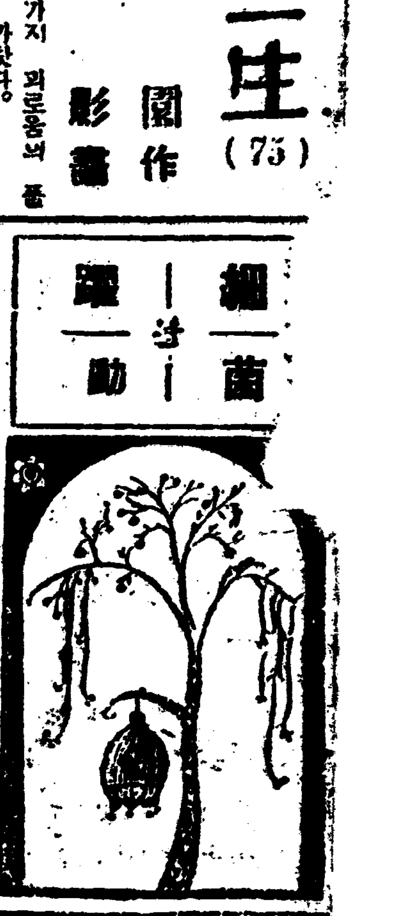
『그것 조치안소。녀름 방학에 잘 놀고 쉬라는 방학이오。이 더운 녀름에 산이나 바다에 려행하는것 조치마는 이더운 동경 속에서 공부하는것 올치안소。공부하는것 올흐면 방학 업는것이올소。려행하는것도 큰 공부요。네이추어——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책 공부하는것、그것 녀름 방학에 할 일이오。』

하고 책망하는드시 금봉을본다。

細菌—注意—運動

가렵고、압푸고、보기흉한 皮膚病이蔓延

서두룬療治의注意



四五月부터梅雨季에 들어傳染病其他의病이今히增加하는中에도옥甚한것은不快한皮膚病이요。皮膚病은만이라大體細菌이란것으溫度가매우얏은지그反對로皆早쁘면繁殖하지못하나、요사히氣候와濕氣가태서는菌의播殖이잘되여열어가지細菌이때를맛낫다고蔓延한다。을撲함것과滅하곳치는것이重要하오、迷信에말니고藥에맘셔러는동안에、夏害과갓치정정퍼저서、慢性이될危險이잇소。또솸皮人은單只殺菌力과一般皮膚病에有効하다는文字에 幻惑되기쉬운治療專門藥과 萬能的藥과의區別뿐으로는 注意할것이요。

皮膚病의種類

皮膚病은 여러가지나皮膚에나타나는變化上으로보와大體五種이되오、第一은皮膚가붉게됨、이것을紅斑이라하오、第二는患部의周緣이 집눌러 부르러올은것인데 이를丘疹이라하오、第三은患部에淋巴液이 모혀서水泡가되오 이것이、水泡疹、이水泡中에膿이잇는것을膿泡疹이것이러저痂皮가되는것을膿痂疹이라하오、여러가지皮膚病은 이五種中에 어느것에고맛소。

刺戟은大禁物

皮膚에는病刺戟이禁物이라는點으로극던지藥에刺戟性이잇든지하면、患部를惡化하는故로거게지안소。그래서刺戟어업고、김可皮下까지들어가殺菌作用을하는藥이안이어면使用해서는안되오、化粧에나다조藥은업소、

皮膚病의 專門藥으로最近評判잇는「アスター」는皮膚科의泰斗佐藤、久保山、安藤、瀨田、各醫學博士의推奬이잇고、無刺戟으로殺菌力이强하며滲透性만코、氣分조케搔痒을除하는同時에、生汁의分泌을制하고、흉하험집을안내고婦人幼兒의살에도安全하고効가이조와、널니賞用됩니다 發賣는外平商店인데、各藥店에잇음。

病菌에도種種

皮膚病의病菌은이것이열어가지인데떡의곰팡이가튼 絲狀菌(말은옴어루러이)도잇고、蜘蛛가튼手足으로、皮下에隧道를파고潛行하는(寄生虫)도잇서 幼兒를괴롭게하는「태독」또는「膿痂疹」가튼膿痂疹性濕疹과갈이운陰囊濕疹掻痒疹等이잇서하는말로皮膚病이라하나 열어種類가잇소、그러나그것이 大槪는頑强하야한때난것갓치되여도、여간해서는조治되기어렵소。그래서治療는엇잿든참된兩療專門의藥

皮膚病藥의用法

皮膚病은퍼지는힘이强하야、菌이周圍皮膚에점점퍼집으로、アスター를발느랴면、먼저患部周圍로브러가운데를向하야살근히문질러발늡니다。그러면病菌은퍼지지못하고、自然낫기도速하며、決코中心部로外側에向하야塗布하지마십시요

아우는婦女편여 兄은人夫를편여

毆打끄테告訴질까지하여 咄咄! 相殘何太急!

【載寧】 대소롭지안흔일로 兄弟간에 두형이 이러나서 맞고소를 계출하는등으로 매부 의견을것고잇는괴상한형제가잇다 ─ 황해도황주군구성면용두리분토동(黃海道黃州郡九聖面龍頭里分土洞) 김재혁(金在赫)(三〇)은 방금 동동리(同洞里)의 공사중인 황주편창 식산주식회사(黃州片倉殖産株式會社)의저수지제방공사장(貯水池堤防工事場)에 일하는인부들이 자긔안해는물론 동리의 일반부인들이 동공사장근처에잇는 우물에 물을 길러갈적마다 여러가지로 부녀들을 희롱한다고 지난달륙일 동공사에 종사하는인부들과 술을마시든 좌석에서 힐책하엿든바 동문제로 드듸여인부들과의간에 말성이생기게되여 인부들이 하숙하고잇든 자긔륙촌형인김경혁(金景赫)의집에서인부들과다투고 자긔집으로 도라가잣다는데겸이포(兼二浦)방면에서술이취하여 도라온 하숙수인 김경혁은동사실을 듯고 그날밤 십일시경에재혁의집에가서취침중인재혁을구두발길로할부로차서바른눈(右眼)을실명케하고다시흉부(胸部)등을무수히차서상당한중상을당하고이래치료중이라는데 가해자 김경혁은재긔공사장에 십장으로 종사하고잇는 끈으로이를황주편창회사에 갈동을동하여 어떠케보고하엿든지 그익일에 동회사에서는 공사를 방해하는자라고 공무방해(公務妨害)로 소관구성 주재소(九聖駐在所)와 겸이포 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하엿다는바 피해자 김재혁도 지난오월일일에 드듸여평양검사국에맛고소를제긔하엿다한다

債金受取는拒絕 片倉社態度가더욱可憎 支拂命令하고

【黃州】 황주편창회사에 사홈사건에관하야 다시 황주편창회사에서는 어떤자의교임에 빠젓슴인지 전긔피해자 김재혁(金在赫)의부친 김영근(金永根)이가 면해전에 동회사로부터 대용(貸用)하여든 금륙십원에대하여지난달이십일일에 아모 독촉도업시 돌연지불명령을수속하고 소유가옥을 가차압함으로 채무자 김영근은 백방으로주선하여 지난십오일에 동동리 김하강씨로하여금 전긔채무금을보내여 지불코저하엿든바 동회사에서는 접수를 거절함으로 다시김영근 본인이 지난이십칠일에 지불코저 재차출두하엿스나 역시괴상하게도 동회사에서는 그접수를 거절하엿다한다 동채무는 작년도말에 리자를환부하고 매년도말에와서 농작물을주수한후 환보키로되엿든것을 돌연 춘경긔에 지불명령을내린것도 의아할점인데 다시 그지불명령에의한 채무금액의 지불환부를 거절한다함은 지불명령의성질이 어데잇는지괴상한처치일뿐아니라 이는 금번김경혁(金景赫)과의싸홈사건으로인한개인김경으로중간의엇던인물들이회사당국에회책한것이나 아닌가하고 그귀결을일반은 주목하는일방 권괴와가튼 회사당국의 처치는괴상하다하야 비난이자자 하다한다

訴訟費를憑藉 作權剝奪暗示

별항편창수식회사분토동저수지공사장십장김경혁과김재혁량인의 상쟁사건으로 동회사에서는괴이하게도 지난오월 일일에 사람을 보내여금번사건에 관한 회사측의소송 비용기다로 현금 이십원을 납부하면 소작권도그냥주며 지불명령도 취소할뿐만 아니라 모든것을 조토복원만 해결케하여 주겟다고 말하엿다는데만일 회사측의 요구에불응할시에는 소작권을 박탈할것을 암인중밀한것이 잇서서 동회사의처차는 어대까지 그중간인물들의회책에 빠저그와가티 괴상한태도로나온것이아닌가한다

「農監을煽動」 凶計를制策

被害者 金永根氏談

그런데 세상에 이런법이어듸 잇습니까 부녀들을 희롱한다고 이부들과 다룬것이 설사잘못이 내자식에게 잇섯든들 눈을 못보게까지 륙촌형되는놈이 발길로 이떠엿습니까 또그뿐만아니라 회사에다 무어라고 고자질을 하엿든지 그렴대소를지안흔 일에실명케 구타한후도 무엇이 부족하여 다시 공부를 방해하엿다고 고소를 제긔까지 만들고 그우에 또 소작권까지 떼아스랴하니 업는놈은 그저죽어야 될세상입니다 이번사건은 정녕코 김경혁(金景赫)이란놈이 자긔매부인 동회사의 농감(農監)인장석민(張錫敏)이란자를 들추어 이와가티 고소를 당케하고 다시 그놈의 손으로 소작권을 빼앗는등으로 우리부자를 이동리에서내여 쫏치랴고 계획한것으로압니다 우리도 참人다못해 지난오월일일에 평양검사국으로 맛고소를제출하엿스니 법이야 바로처단해주겟지요 운운

"毆打는事實"

加害者 金景赫氏談

그녀석이 내가집에업는 사이에와서 인부들을구타하여 내여쫏처다기에 밤장수를 맛수업서 서본김에 구두발길로차[illegible] 지 못보게 되엿다는것은 [illegible] 다 그래회사에 이약[illegible] 고소를제긔한가봅니다 [illegible] 타처에서 인부들[illegible] 으로 동리사람들은 [illegible] 쫏처야 일해먹을수 [illegible]

僱傭은保留 奪與는尙未定

農監 張錫敏氏談

[illegible] 항상몽고잇서서 금번 [illegible] 이르킨것인가보다 운 금번문제에대하여나는자세히 알수업습니다 소작권박탈 운운에대하여서는 장차는 알수업스나 금번도분문제아즉 계약해주지 안흔형편이로으로 압호로 어떠케될는지는 알수업습니다 지체금지불을 전수치안[illegible]하엿다는것도 모다회사의방침으로서하엿는지 그[illegible] 자세히 알수업스나 모든일에대하여 회사의방침지시 대로 처리하겟습니다운운

主人에는金영야 列車內에데굴데굴 移動班[illegible]酷의所産?

【新義州】 현[illegible] 단의 대사건이[illegible] 도로 날카로위[illegible] 동경찰반원는[illegible] 의 렬구등을[illegible] 는까닭에 밀[illegible] 도의공포를[illegible] 일 경의선복[illegible] 목메나되는[illegible] 린것을발견[illegible]

新義州風紀肅淸에努力

【新義州】 신의주경찰서사법계에서는 지난사일에 부내미륵동(彌勒洞)일백칠십사번지에 잇는음식점영업하는 김소저(金小姐)(二五)일백오십삼번지에잇는 김헌준(金賢俊) 이백칠십이번지에잇는 김란실(金蘭實) 등 사명을 소환하야 엄중설유한후 각각구류에 처하엿다는데그 내용은 지난일일새벽 다섯시경 줄긔 세웅식점에서 술사먹으러 온손님들과 작부들이 동침하되 잇는중 린검하던 신의주서원에게 발각되여그가티 처벌을당한 것이라는바 이에대하야 신의주서사법계에서는 금후부내 각음식점에서 이와가튼 부정사실이 업도록 철저히취체할방침이라 한다

咸鏡線第二次의 列車事故大騷動

貨車八輛顚覆、人命僥倖無事 被害額約十萬圓

【文川】 지난오일오전팔시이십분경에 함흥발남행 오삼이호(五三二號)의렬차가 룡담역(龍潭驛)을떠나서문천을 향하야스피—드를노아서질주하던중문천으로 북쪽약칠팔키로의 지점에 니르러 별안간일대폭성을 지르고 열차의후면화차팔량(後面貨車八輛)이전복되엿는데 천행으로 승객중엇사람의 경상은입엇스나인명피해만은업섯스며기타의손해는약십만원의거액을산하리라는데 함경선개통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뎐전고원사고와 함께초유의 대피해사고이라하며 원인은방금조사중이나 아마도 선로의 고장이잇섯든모양이라한나

『바라지부스』등전염병이류행하고잇다는바 더욱군선(群仙)등지에는 발병호수가 상당히다수에니르는바 거리에는 병후쇠약한 자가날노 느러가는 형편임으로 예방에대한 무슨당국의 방침이 잇서야할것이며 일반의 마음은 자못불안한상태에잇다고한다

利原에染病流行

【利原】 함남리원(咸南利原) 지방에는 장질부사(腸窒扶斯)

容疑者毆打致死한 船木巡査等公判

三年과二年役을求刑

【咸興】 작년사월이십일오전 여섯시경에 북청경찰서에 경찰습격의 피의자로 피검되엿다가 이십삼일 동서고등계 형사의취조를밧든중원관이주먹으로두부를 란타하여현장에서 혼도한후 그날 열한시경에 절명하엿든사건의 피고원북청경찰서 고등계 현재 서목장좌(船木章佐)(三六)외일인의 공판이 지난사일오전 열시반부터 함흥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어원생재판장 주심과대판검사립회하에개정되여엄숙한 분위긔속에대판검사의 혹렬한 론고가끗나고 삼년과 이년의구형이잇슨후 동한시반에 폐정되엿고 언도는오는 십일일이라한다

工費十一萬圓의 群山公會堂竣工

五日盛大히落成式擧行

【群山】 십만사천팔백원이란대금을 드려 조선제일을목표로건축한군산공회당(群山公會堂)은 지난사월삼십일로써 준공되엿슴으로 신축락성식을 지난오일 오전열한시부터관민사백명의래빈으로 성대히 거행하얏는바 건축의개요는다음과갓다한다

用地面積六九七坪

◇本館 一層 事務室 應接室 會議室 商品陳列所集會室 二層—大集會室(收容人 一、五〇〇人) 三層—貴賓室

◇別館 一層 一般及特別食堂 調理室 日本間 二層—宴會場 洋室 三層—宴會場

◇主要設備—蒸汽暖房裝置 消火裝置 各附所給水裝置 映寫設備 ◇사진……신축된공회당

平川里에 痘瘡患者發生

【平壤】 평양부평천리(平川里)의번지매약청매언(賣[illegible])외손자명언(明彦)(三)은이일칠앙서의 효구조사에의하여 두창을의 자도서 보생의원(普生醫院)에입원중이든바 사입진서천연두로 결정되엿는데 동서에서는목업로 원천리교구경일대를건병하기위하여 호구조사를 하는일방 림시종두를 실시하기로 되엿다한다

慶南의新救農策 棉皮手工을奬勵

生產百四十萬貫中 半分을製紙에供給

【釜山】 전조선 제이의 면작(棉作)을 자랑하는 경남도에서는총독부 중앙시험소의시험공지(棉皮楮紙)의시험공작의성과를보고면화를 떼내고난 피듯리 겁지를리용하야 조희를 만들것을대대적으로 장려할 작정이라는데경남도내의 본면도면피(棉皮)생산고는약 일백사십 만관주침십만관가격 팔십오만 원와 제지원료의 공급을 괴설제지공장에공급 리용케 하는일방남어지칠십만관의 원료를 가지고 농촌의 부녀자에게 부업으로작업케하야 실익을 보게하려하며 극도로피폐한농촌의 구제책의하나로 작업이 가장간편하야 누구라도 여가에 수공(手工)으로할수잇슴으로 이장려가 일반농가에 실시된다면 막대한리의 을보아 조선백지의 자작자용을 보게되여 페물리용을 아울러이중생산의실익을보리라한다

男便薄待에憤慨 放火한절믄妾 元山署에서嚴調

【元山】 지난 사월 이십칠일 오후 십시경 덕원군 북성면 문평리(平壤郡北城面文峰里) 김이두(金二斗)(三〇)의 집에 방화한자가 잇섯스니 그는 권괴 김이두의첩 강금녀(姜錦女)(二四)로서 봄으로 진화되여 큰 일은 업섯다는바 이제 그가 남편되[illegible] 집에 방화한 원인을 드르면 지난 이월경에 김이두가 원산에 볼일을 사려왓다가 강금녀를우연하 가로에서 맛나 서로 알게되여 자긔 본처 사이에 자식업슴을 한탄튼 차입으로 권괴 금녀를 자긔첩으로 삼아 이래 동거하야 왓스나 몃달이 지난 오늘까지 임신하는 긔미가 업슴으로 차차 정이 식어간 모양인데 금녀는 이에 분개하야 집안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이십칠일밤에 방화한것이라는바 그는 방금 원산서에서 유치되여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 한다

善山의小作爭議 全部仍舊作解決

小作委員會調停으로

【善山】 선산군내각면에서는 농경긔에 잔인한 소작인의 소작권을 박탈하야 쟁의가 빈발하야 한동안 선산사회의 물의가분분하든바 아모 허물업시동긔에와서 작권을빼앗긴 억울한 소작인들은 그사실을 소관재판소에 호소하는한편 조정원을요로당국에 제출하엿다한는 긔보한바어니와 위선 재판소에서 선산군으로회부된것만이 륙건임으로 지주와소작인급 각관계자를 소환하야 지난삼일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소작위원회(小作委員會)를열고 문제의륙건는 란상협의한결과 권부가 지주와 사음의 몰지각에서 긔인된것이라인정하고 원소작인에게 환부하엿는데 아즉재판소에서 회부되지안이한것이 칠팔건이 잇슴으로 모관관계상불일내 사건전부를 원만히해결할 방침으로소작위원회가열일터이라고한다

未解決件도 近近斷平處置

黃善山郡守談

소작위원회는 어제 시작하야 오늘오전까지 맛첫습니다 근일 발생된쟁의가 삼오륙건되는데 위선재판소에서 회부된것이 륙건임으로 그것만을이번 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엿는데 권부가 지주의몰리해로 긔인된것임으로 모다 원소작인에게 환부케되엿습니다 광연히 지주들의 몰지각으로잔인한 소작인만 괴롭게함으로 단호한처치를 할것입니다 아즉 미결된것도 칠팔건인는데 모관관계로 금속히 위원회를 어원도열만히 해결할터입니다」

全朝鮮弓術會 鎮南亭主催

十八日부터三日間

【群山】 군산 개항 삼십오주년 긔념을 긔회로 군산 진남정(鎮南亭)에서는군산남부의후원을 어더오는오월십팔일부터이십일까지 삼일간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전조선궁술대회(全朝鮮弓術大會)를개최하기로되얏는바 회비는일원오십전이오 상품은 여좌하다한다

◇男子部—一等一人六十圓 二等二人三十圓式 三等三人二十圓式 四等四人十圓式 五等五人七圓式 六等六人五圓

◇女子部—一等一人十圓 二等一人五圓

普校生九割이 寄生虫保持者 驅除藥을配布

【平壤】 평남도 위생과(衛生課)에서는 아동의발육상은물론 학업에 직접영향을주는 긔생충들에게 『마쿠닌』을 무료로배부하여 복용케하기로하고 계획을 진행중인데 보통학교의 아동는 구할(九割)까지가충란(虫卵)을 가지고잇고 소학교아동은 사할오분의보지를갈가지고아동들의 배가운데에는 긔생충이 우글우글하고 잇는터이어서 권반학동에게 긔생충구제약을 배부복용키로하고 일만인분을 각보통학교와소학교에배부키로되엿다

少年慘殺犯은 十九歲隣家親友

醴泉强盜事件後聞

【醴泉】 지난 어입에 례천읍 서본동(醴泉邑西本洞)뒤人산골에서 참살당한 소변의 시체를 발견하고 당지경찰에서는 혐의자임명을 인치하고 엄중하취조중이라함는 긔보하엿거니와 취조에따라서 범행사실을 일일이 자백하엿다고 한다 범인은레천읍서본동(醴泉邑西本洞)김정용(金丁用)의아들김부헌(金富憲)(一九)이란 소년으로 피살당한박성태(朴成泰)(一六)와 한이웃에 살고 잇슬뿐 아니라 서로 친의가 형제나다름 업섯다고 한다 범인의 자백한 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 삼월 삼십일오후칠시경에 권괴 참살당한박성태(朴成泰)가김부헌(金富憲)을 차저와서 하는말이 나에게 리두리 작반하야 대구로 구경을 가자고 함으로 돈 륙십이원에 별안간 두눈이 뒤집혀진 김부헌은 그를 유인하야 동리 뒤人산골로 다리고 가서 돌로 때리고 목을 졸나서 죽인후 현금 륙십여원을 빼서 가지고 오든길에 대담하게도 박성태의 집을 차저가서군이 방금 대구로간다되 떠나는것을 보앗스니 속히 수색원을하야 못가도록 하라고 일너주고 밤이 깁흔후에 다시 삽을 가지고 살해한현장으로 가서 시체를 흙으로 덥허노코 오다가 삽도 땅에 무덧다고한다 아직까지 공범의유무는 알수업스나 불일간 송국되리라고한다

三角愛關係로 靑春女子飮毒

【光州】 지난 이십구일 오후 오시경에 광주읍 금정(錦町)문시운(文時云)방에서는 삼각애(三角愛)(二六)로 말미암아 일어난질투의싸홈끄테 문의처리순애(李順愛)(二八)라는녀자가 양재늘을 마시고 일시긔절이되여 즉시금정 민병귀의원으로 다리고가서 응급수당을 가하야 겨우생명을 구한후 퇴원하야 동병원 압집 만성옥(萬盛屋)이라는 술집에 가 신용하고두어잇다는데 그음독하기까지의 내용을들으면 박긔리순애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전긔문시운과부부의관계를 매젓스나동거치못하고여괴저괴 음식점으로몸이팔니여단이든중 시내부동정(不動町)사는정윤모(鄭允模)라는 남자와 정을두고 지내든것이 그만 비밀이폭로가 되여 그로인하야 그남편으로부터 질투의싸홈이 일어나서그와가티 음독을 한것이라한다

地金賣渡證가진 靑年一名檢擧

平北移動班에서

【新義州】 지난오일아침신의주역착 북행렬차내에서 행동수상한 사람한넘이 이동경찰에게 검거되여 목하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듣는바에의하면 그는평남 개천군(平南价川郡)출생 로홍운(盧興云)(二□)으로서지금(地金)매도서여섯장을 회중에갑히 간직한것을보아 혹 금괴밀수범이나 아닌가하야 그가티검거한 것이라한다

殖產契淸算殘金 商業學院寄附

【淸州】 청주청수정(淸州淸水町)에는 약삼년전에 근기저축을목적한식산계란것이 창립되여게원이 매일일에 십전식저축하기로하야 지금까지 나려왓는데 최근에는경제계가 점점곤난함을따라 이계의 성적도부진함으로 금번에청산을 하게되얏는데 청산동사무는 유리한사업에 연조하자는 의견에 동의가되여 데마친정비에 다소 곤난한상업학원에 백원을긔부하기로 하얏다는바 청주일반사회에서는 식산을목표로하던계금을교육사업과가튼 가장유익한 사업에회사하게된는 일반사회의 의식이진보된것을반증함이매 권자의상업학원(商業學院)의설립을보게되길든사회현상의하나라고한다

各地에서擧行한 어린이날會合

【平康】 평강에서는 어린이날을 긔념키위하야 지난오일오전열시반부터 유치원과 각학교생도들 필두로어린이 팔백여명 기타시민급 각관공서원등 약천여명군중의 장사진이 시내를일주하는 긔행렬이 잇섯는데금번은 례년과새로운 방침으로각상점에서 긔증한특표어늘을 오색긔(五色旗)삼십여개와주앙촌바회로부터 보내각종삐라날며 본보지국(本報支局)에서특별긔증한 인쇄긔등으로 시내는완전히 어린이세상을이룬듯 전에업는 장관을 이루고 동오후령시이십분경에 긔행렬은 무사종요하엿다

【朔溪】 복계역에서도동일 상오복계유치원 어린이를위시하야 읍내에서분파된 한장과소학교생도등 오백여명이 시내일주 긔행렬을 성대히 행하얏다

【白鶴】 현내면백룡리(縣內面白龍里)에서도 동지공보생과 기외아동수백명을 모아가지고 동일긔념동화회를 개최하얏다

【洗浦】 세포공립보통학교를중심으로한어린이날긔념수최는극성황을정하엿다 그리고 동야오후팔시부터 평강례배당에서 긔념동화회를 개최하고 박복룡,리규선,주성애,송긔경(朴福龍,李奎善,朱聖愛,宋奇卿)제씨의 유익하고자미잇는 동화회를주최하고 당야에 모혓든어린이에게는 일본과자를 선물하엿스며 익륙일에는 유치원수최 유희를 백련암(白蓮庵)에 개약최하고 하로를 종일소창하는등 야일일간극성황으로시종되엿다 한다

【全州】 지난오일밤 여듧시부터 전주완산정례배당에서 동교회소년연락회(少年勉勵會)주최로 어린이날을 긔념키위하야 동화(童話)회를 열엇는바 동교당회원은물론 일반가정에서도 만히 참가하엿스며 동화회는대성황을이루고 동십시경에 폐막하엿다한다

今日 大邱市內見學團

▲午前八時半 道廳前集合

▲主催 朝鮮日報社大邱支局

光州 兒童健康審查會

▲期間 七日부터三日間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光州基督少年斥候隊

◇後援 光州朝鮮人開業醫全部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 【一〇九】

李巴村作 熊超畫

죄와벌…(十一)

「정순이가 엇더케됏서요?」

하고 은혜가 물어본말은 상수가 은혜에게 물어보려고하는말이다。

상수는 몰으겟다고하기가참아못그러웟다。자기의안해가자기를떠나 딴 남자를 차저단이다가 죽어버렷다는것은 미상불 붓그러운일이엿다

상수는 정순의 편지를밧고 곳 떠나온길이다。그러지간어도 조선으로 오려고하든차에 그런편지가 오고보니 급급히 서둘러서 떠낫든것이다。비행기로오려고햇스나 비까닭에여의치못하고 기차를타고왓다。

그는 오든길로 봉이를데리고 히경이집으로 차저갓다。

그러나 히경이도 정순의 행방을몰라소 어리벙벙하고 잇슬뿐이엿다。

히경은 정순이가 동생을차저간다고하든말을하면서、정순이의 그 몸을애찬하는것을보아、손人가락하나래도 터지면 머리를싸매고 두려둠다십하하는것을보아 자기의목숨을 스스로끈놀리는 절대업스리라고 결론헷다。

그래서 우선 상수는 봉이를 히경이집에재우고 정애를 차저오는길이다。

은혜는 상수가 아모대답도 못하고 잇는것을보고 벌人서 그의 심경을 영리하게 진단햇다。

안인밤人중에 이 맹아학교로오는것이 꼭 자기가헤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것을알엇다 은혜 눈압해 나타난 상수는 처참하기 짝이업섯다。한업시 몰人상해보엿다。그렇수록 정순이가괫심하고 인정이업고 강파라지게 생각이되엿다。

「나는 모든것을 단렴하고 십습니다」

하고 상수는 자기의 붓그려움을 변명비슷이말햇다。

「강선생님은언제오섯서요?」

하고 은혜는 강의 마음을진정식히기 위하야 화제를돌려 말햇다。

「바로 오늘밤오는길입니다」

「저두 오늘밤 오는 길인데 그럼갓치오면서도 몰낫군요!」

「네……나는 정순이가 죽지아넛슬것갓습니다。죽엇스리라고 생각되지안어요」

「글人세 그러케만 됏스면… 그러나 정순이가 너무 기분적 생활을하나까……」

「안입니다、만일 죽엇다면 신문에낫슬것입니다。또죽엇다면 정순은 팔백원 가량이나 돈을가젓섯는데 그돈이 어듸로갓겟습니까!」

하면서 상수는 그.돈의 거처를 몰으는것과 자살햇다는것이 신문에보도되지안엇다는것을종합하야 그의죽엄을 부정해버리랴고햇다。

은혜는 아말을드를때 가슴이 띄끔하엿다。

그돈이 내수중에잇다는소리를들으면 강은 얼마나 놀랠것이냐? 지금까지 하여오든 막연한 히망조차 영영 끈허저버릴것이안이냐

은혜는 상수의 희망을 갑자이 간히노코 그 히망으로 안심하다시히하는마음을 보컨해주기위하야 하여간 오늘人밤 정애를만나본 연후에이야기하기로햇다。

상수는 은혜가 정순을차저서 이처럼단이는것을볼때 눈물이고이도록 감사햇든것이다

「정순이가 그 인물에、은혜의마음만가젓서도……」

하고 그는 은혜의 비마즌옷과 추워하는 얼골을바라보앗다。

두사람은 또다시 문을두두렷다

상수의 굵은 목소리로 어번에는 용이하 방안에서 사감려채리고 불이켜지면서 선생이문을열엇다。

두 사람의 가슴은 두군거렷다。정애가 정순이생사에 커다란열쇠를가지고잇는것갓기도하고 또 세상사람들이 몰으는일을 정애가 엇더케알겟느냐하는 허된 생각도 일어낫다。

「민정애 좀 만나게해주시요」

하고 상수는 멀리는목소리로 말햇다。

「엄습니다!」

하고 사감은 이상스럽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어보앗다

「어듸갓습니까?」

「한사간권에 제 형한테로갓지요!」

「무엇? 어듸데? 그럼 정순이가 살어잇구나!」

하고 두사람은 똑가티 놀냇다 상수눈에는 자기의예측이 잘맛는듯한 빗차 사리는듯햇다。

第一劇場 五月六日부터向三日間 二大特選名畫公開 每日二回 晝夜 料金 大衆 階上 ... 十五錢 파라마운트社特作品 농담이시지요 全八卷 名篇 現代 嫁入り前 (시집가기前) 全八卷 川崎弘子主演 참이映畫야만다시여러분을마취식힐新鮮的名畫이올시다 鍾路四丁目 電光 二五五

中央館 五月五日낫부터 一九三四年初夏을裝飾하는 大最高傑作一齊封切 待望의珠玉篇特別週間 파라마운트社超傑作品 (日本版) 斷腸의悲歌 全九卷 名花 크로데트·콜벨 嬢 神風連 全十二卷 鞍馬天狗地獄の門 青春罪あり 全九卷 永樂町一 電本 三二一三

朝鮮劇場 朝鮮少年軍總本部映畫의第一 霹靂的冒險篇五月七日부터大公開 麥酒萬歲 全八卷 青春罪あり 全八卷 仁寺洞 電光 三三六

優美館 幸運王달맛치 全七卷 스파다 全九卷 世界大洪水豫告篇 朝鮮少年軍實況 京城어린이날 貫鐵洞 電光 二九五

團成社 五月七日부터特別大公開 을거본武勇傳 摩天樓의悲劇 全八卷 最後의審判 授恩洞 電光 九九九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浪花館 女學生日記 六卷 新版ロイドの活動狂 十卷 明治町一 電本 三八五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支店